마음충전소

# 바다와 차, 그리고 멈춘 시간…
# 신이화차 한 잔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 영종도 오션뷰 찻집 ‘차덕분’

## 자연 속에서 누리는 고요한 회복

인천 영종도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 이곳에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통창 너머 펼쳐진 바다를 마주하면 흩어진 기운이 정돈되고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는 치유가 시작된다. 정갈하게 우려낸 차 한 잔을 앞에 두면 복잡했던 생각들은 파도에 씻겨 내려가고 오직 ‘지금, 여기’의 고요함만이 남는다.

인천 영종도 구읍뱃터 끝자락에 위치한 ‘차덕분’은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과 다도(茶道)라는 정적인 문화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2025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영종도 본점은 바다를 조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8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오션뷰는 시각적 개방감을 넘어, 일상에 지친 감각을 부드럽게 깨운다.

WELLNESS
KOREA
우수웰니스관광지
차덕분
Thanks to tea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 코끝에서 시작되는 치유, 신이화차의 힘

찻집에 들어서면 은은하면서도 알싸한 향이 깊숙이 스며든다. 이곳에서 특히 주목할 차는 목련의 꽃봉오리를 말린 ‘신이(辛夷)’로 만든 신이화차(辛夷花茶)다. 붓끝을 닮은 봉오리를 채취해 말린 신이는 따뜻한 성질과 매운맛(辛)을 지녔다. 우리 몸의 막힌 구멍을 열어주는 개규(開竅) 작용이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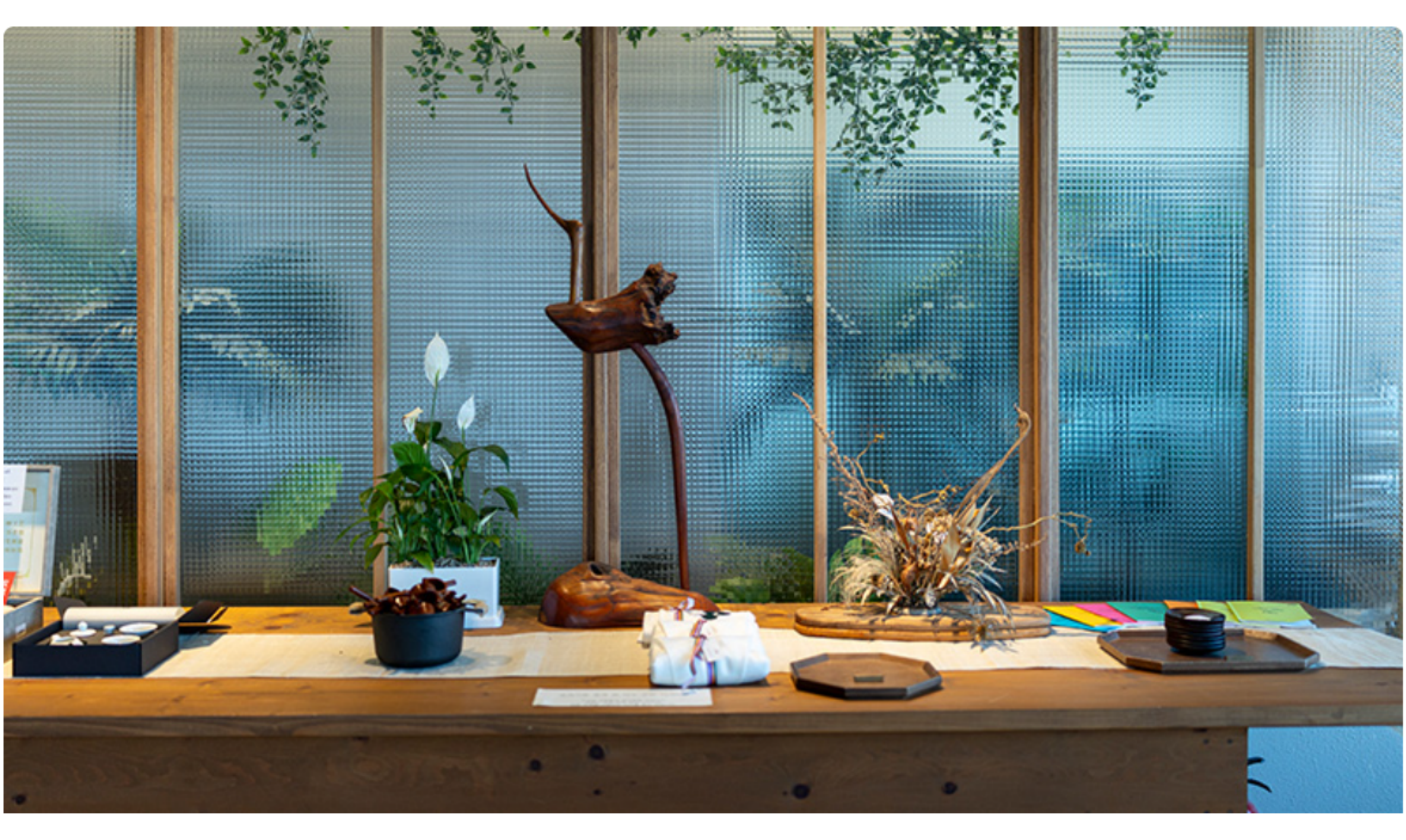
특히 신이는 폐와 위의 경락에 작용해 비염이나 코막힘, 축농증 등 호흡기 계통의 정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이화차의 맑고 따뜻한 기운은 코를 시원하게 해주는 물리적 효과를 넘어, 스트레스로 쌓인 정체된 기운까지 부드럽게 풀어준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애기설국차’는 고산지대의 혹독한 환경을 견뎌낸 국화의 생명력을 담고 있다. 설국은 간의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는 청간명목(淸肝明目)의 효능이 있어, 장시간 모니터를 주시하며 피로가 쌓인 현대인에게 제격이다. 차덕분의 차들은 대부분 식재료이자 약재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정서적 허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 바다와 다도가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

차덕분은 누구나 자연과 차를 가까이하며 자신의 속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간의 구석구석을 배려와 정성으로 채워두었다. 한의학에서 바다는 수(水)의 기운을 상징한다. 수의 기운은 안으로 응축하고 모으는 수렴(收斂) 작용을 돕는다.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좌석 배치는 상기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안신(安神) 효과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온기가 느껴지는 목재 가구와 흙의 질감을 살린 다구들은 자연의 편안함을 고스란히 끌어들인다.

찻잔 속에서 찻잎이 피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일상에서 켜켜이 쌓인 생각들도 함께 가라앉는다. 차와 다과를 음미하는 시간은 감정의 피로를 털어내고 다시 일상으로 나설 힘을 채우는 작은 의식이 된다.



## 함께 둘러볼 만한 주변 관광지

차를 마신 뒤에는 근처 영종진 공원이나 씨사이드파크로 발길을 옮겨보자. 영종진 공원은 숲길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씨사이드파크는 서해의 낙조를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차덕분에서 가라앉힌 마음을 바닷길 산책으로 천천히 이어가다 보면 나만의 치유 코스를 완성할 수 있다.

### 꼭 알아두면 좋은 사항

- ✓ 차덕분 영종도 본점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채광이 일품이다. 특히 낙조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서해의 장관을 만날 수 있다.
- ✓ 신이화차는 그 향이 약효의 핵심이다. 차가 나오면 바로 마시기보다 코끝으로 향을 먼저 충분히 음미하여 비강(鼻腔)을 자극하는 것이 기운 순환에 더욱 효과적이다.
- ✓ 차덕분은 차의 온전한 맛과 공간의 고요함을 지향하는 곳이다. 대화를 나눌 때는 다도의 정적인 분위기를 존중하며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쉼의 예의다.